



1 연중 성수기 2 중장년층 증가 3 콘텐츠 확대

한국영화 1000만 동원...더이상 '넘사벽' 아니다!

극장가 '상시 1000만 시대' 열리나

'7번방...' '베를린' 동시 1천만 돌파 눈앞
30~50대 관객 증가로 비성수기 사라져
판타지·사극·재난 영화 등 다장르 한 폭

대형 배급사 장악·몰아주기 해결책 필요

한국영화, '상시 1000만 시대' 맞을까. 2004년 '실미도'가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지 8년째. 그 사이 1000만 한국영화는 7편이 탄생했다. 심지어 지난해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이하 광해)는 한 달 차이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최근 '7번방의 선물'이 7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1000만 관객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배급사 NEW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관객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베를린'도 개봉 14일 만에 500만명을 돌파하며 쾌속 질주하고 있다. '광해'의 1000만 동원 이후 불과 4개월 만의 현상이다. 1000만 한국영화의 탄생 주기가 급격히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실감난다. 영화계는 "1000만 영화가 수시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극장가, '연중 성수기'

유례없는 호황이다. 시장도 커지고 있다. 1월 한국영화 관객수는 1198만명(영화진흥위원·이하 동일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같은 달

◀ 지난해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시작으로 최근 '7번방의 선물'과 '베를린'이 경쟁하듯 흥행을 이끌며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뒀다. 사진은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극장 관객들. 연합뉴스



(824만명)보다 무려 45%가 늘었다.

겨울방학이 겹친 1, 2월 극장가는 대체로 많은 관객이 몰리는 시기. 하지만 극장가 전통적인 최대 성수기는 명절과 여름방학 시즌이다. 비교적 준성수기라 할 만한 1~2월 '7번방의 선물'과 '베를린'이 빠른 흥행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 비수기로 꼽혔던 10월 '광해' 등이 크게 흥행했다는 점 등에서 이미 극장가가 연중 성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분석의 근거는 지난해 극장 관객 통계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전체 영화 관객수는 1억 94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 중 한국영화 관객은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또 평균 영화 관람횟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3.83회. 2011년 3.15, 2010년 2.92회로 최근 3년 새 그 횟수가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주요 증권사들은 이달 초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가 늘어난 2억1800만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30~50대 관객층 확대

관객층의 급격한 확대도 '상시 1000만 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 영화 흥행은 20대 관객이 좌우한다는 건 옛말이다. 이제 흥행을 결정짓는 세대는 30대 이상 관객층. 특히 40~50대 중장년 관객이 크게 늘었다. 뮤지컬 영화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둔 '레미제라블'(585만)도 이들 관객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는 "요즘 중장년층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욕구가 큰 세대"라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도 많아 사회적 담론에 민감한 이들 세대 관객의 욕구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관람 환경 변화도 중장년의 극장행을 부추긴다. 이미 주거지 인근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리를 잡아 손쉽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지도 오래다.

●다양한 콘텐츠

경쟁력 강한 이야기와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한 한국영화는 2006년 정점을 찍고 이후 침체

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영화 투자수익률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13%였다.

'광해'에 이어 '베를린'으로 1000만 관객을 노리는 CJ엔터테인먼트의 이창현 부장은 "지난해 400만 영화가 여섯 편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잘 되는' 장르로만 자신이 몰랐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야기꾼들이 만드는 영화가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신뢰를 회복했다"며 "허리가 탄탄해지면 스트라이커와 같은 1000만 영화는 더 자주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한국영화는 판타지(늑대소년)부터 사극(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재난(연가시) 등 다양한 장르로 그만큼 다양한 세대를 극장으로 불러 모았다.

●"이면(裏面)도 보자"

이 같은 '상시 10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쪽 호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기대작에 상영권 몰아주기, 대형 배급사가 기획에서 상영까지 장악하는 환경 등은 '의도된' 1000만 영화를 만들 어낼 위험이 있다"며 "제작·투자·배급 등 투명한 역할 분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현장 스태프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영화 흥행은 경제 불황과 맞물린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여가 활동을 즐기고 극장 관객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경기가 좋아지면 영화 시장이 위축될 위험요소도 있다"고 짚었다.

이해기 기자 gofi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ON AIR

채널A 밤11시 웰컴 투 시월드

“결혼 반대? 차라리 죽어버릴래” 현미, 수면제 가지고 다닌 사연

“결혼 반대에 난 이것까지 했다!” 며느리들을 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시어머니들이 과거로 돌아간다. 14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채널A ‘웰컴 투 시월드’는 ‘시월드와 결혼 반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가수 현미는 작곡가인 이봉조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친정아버지를 만났던 일화를 전하며 “잘 생긴 외모 때문에 여자가 많이 꼬여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밝힌다. 이어 MC 정찬우가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아냈느냐”고 묻자 “당시 사

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봉조와 결혼을 안 시켜주면 죽을 결심을 하고 수면제 10알씩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털어놓는다.

아나운서 출신 윤영미는 결혼 반대로 가출했던 사연을 공개한다. 그는 “당시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내가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을 하겠단다니까 친정엄마가 알아누우실 정도였다”고 회상한다. 결국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두 번이나 집을 나갔고, 어렵게 허락을 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한 결혼식을 올렸다. 윤영미는 “결혼식 꽃장식도 전날 한 사람들이 쓰던 걸 그냥 쓰고 신혼여행도 기도원으로 갔다”고 토로한다.

탤런트 이수나는 자신의 아들을 육하는 며느리에 얽힌 황당한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이수나는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 걸 후회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새벽에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내 아들이 술을 먹고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면서 육을 하더라”며 분노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가수 현미가 과거 친정의 결혼 반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수면제를 갖고 다닌 경험을 밝혀 충격을 줬다. 사진제공 | 채널A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책 랭킹

2월 1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스님	샘판파커스
2	김미경의 드림 온	김미경	샘판파커스
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카리노 게이고	현대문학
4	문명의 배꼽 그리스.1	박경철	리더스북
5	수면제의 해	찰스 두히고	갤리온
6	언니의 독실	김미경	21세기북스
7	나는 다만 조금 느낄 뿐이다	강세형	샘판파커스
8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강수진	인물루멘셜
9	그래도 사랑하라	전대식	공감
10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오우아

TV 프로그램 14일 (목)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8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02-2180-1114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채널 A	KBS 1	KBS 2	MBC	SBS	TV조선	JTBC	MBN	EBS	지역민방
4:40 관촬카메라 24시간 5:40 웰컴 투 시월드 6:50 갈 때까지 가보자	5:10 내 고향 스페셜-한국재발견 6:00 뉴스광장 7:50 일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뉴스	6:00 굿모닝 대한민국 (1, 2부) 8:00 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셜-상생이 9:40 유망인물 10:50 지구촌 뉴스 11:10 스포츠타임/20사령관의 가족 11:50 설특집 스타페스티벌-맘마미야	5:10 다문화취약프로젝트-우리는 한국인 6:00 뉴스투데이(1, 2부) 7:50 아침드라마-사랑해나봐 8:30 생활속 오늘 아침 9:30 생활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1:00 주말연속극-아들 녀석들 12:00 정오뉴스 12:20 우리가족 우리문화 1:20 늘 푸른 인생 스페셜 2:10 고향을 부탁해(사마자의 고향 손맛 스페셜) 3:00 3시 경제뉴스 3:10 똑박아저씨 베스트 4:00 어린이 동물구조대 4:30 아옹다옹 동화나라 5:00 MBC이브닝 뉴스 6:20 고향을 부탁해 7:15 일일연속극-오자룡이 간다 7:55 MBC뉴스데스크 8:50 불만제로 UP 9:55 수목미시리즈-7급 공무원 11:15 황금어장-무릎팍도사	5:10 굿모닝 510-세게도시락여행 6:00 모닝와이드(1, 2, 3부) 8:30 아침연속극-너서 좋아 9:10 좋은아침 10:30 뉴스 11:00 SBS생활경제 12:00 12뉴스 12:30 SBS점차클럽 1:30 대학 100대 명강의(제2강 고통을 넘어선 행복) 2:00 뉴스 2:10 중계방송 국회대정부 질문 4:00 매일 열마리 4:30 푸리가 탐구생활 5:00 뉴스메이드/30 날씨와 생활 5: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05 생활속 투데이 7:20 일일드라마-가족의 탄생 8:00 SBS 8뉴스 8:30 순간극대상에 이면 일이 9:55 드라마스페셜-그 겨울, 바람이 분다 11:15 자기야 12:35 SBS토론공감(첫 회) ※ 2:15 나이트라인 ※ 2:25 개그투나잇 3:15 로드 투 평창	5:00 아시아 헌터 6:00 장성민의 시사탐구 7:00 대한민국생 8:00 코리아 헌터 9:00 시사토크 판데 9:50 TV조선 뉴스와이드 '할'(1, 2부) 11:50 유엔채의 뉴스의 '눈'(1, 2부) 1:50 TV조선 뉴스와이드 '침'(1, 2부) 3:50 신들의 시사열차 4:50 장성민의 시사탐구 6:00 박찬희 정해전의 황금 편지 6:50 스토리잡스(미를 만드는 사람들 편) 7:50 북 잇수다 8:50 휴먼다큐멘터리(불남) 9:50 TV조선 뉴스쇼 '판' 11:10 박근형의 추적자 12:10 속사정(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편) ※ 1:10 코리아 헌터 2:10 신들의 시사열차	6:00 출발 모닝뉴스(1, 2부) 8:00 생활속 매일경제 9:00 MBN뉴스투데이(1, 2부) 11:00 뉴스광장(1, 2부) 1:00 뉴스1(1, 2부) 3:00 뉴스M 4:50 정운갑의 집중분석 6:00 남과 남 사이 7:00 휴먼다큐(사노라면) 8:00 MBN뉴스8 9:00 고수의 비법 황금일 10:00 리얼다큐(숨) 11:00 천기누설 12:10 나는 자연인이다 ※ 1:20 정운갑의 집중분석 2:10 맛있는 수다	5:00 티쳐스 타임/30 생활영어 6:00 국민취약/30 미래 직업, 되는 직업 7:00 몬스터 수확파라 7:30 꼬마 형님 친구/45 꼬마버스 타요 8:00 당동당 유재형/30 뽀롱뽀롱 뽀로로 8:45 총총는 곰 공야 9:00 방구덩이 형님/10 치료의 과학서 중요 9:15 캐미/30 달려라 카키 9:45 콜로이의 요술 옷장 10:00 부모(학부모)의 고민, 인생도 행복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기여행 12:10 특집(노벨상 2012 수상자 강연) 18:00 다문화가족의 사랑 14:00 함께하는 한국어/30 순우리말 14:45 영어유치원 요 가바가바 15:10 고양이 피피 16:00 당동당 유재형 16:30 콜로이의 요술 옷장 16:30 콜로이의 요술 옷장 16:45 총총는 곰 공야 17:00 방구덩이 형님 17:10 치료의 과학서 중요 17:15 꼬마버스 타요/30 달려라 카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활속 특 특 특 보니하니/50 큰 19:05 댄싱퀸 19:35 EBS가죽건강 프로젝트 20:30 뉴스/50 세계대기여행 21:30 한국기행(고흥편) 21:50 다문화가족(아시아의 허브) 22:05 미생(2부-해방영국의 부활) 22:45 국민취약 23:15 다문화10+	TJB (대전) 042-281-1101 12:30 특집다큐 14:10 BBO(우리 지구상(청사 전) 18:05 다문화가족(국제에서 살아남기) 18:35 생활속 투데이 CJB (전주) 043-279-3800 11:00 전국 토크 10 가요쇼 14:10 100년의 식탁 18:25 미생의 유재형, 세계의 하이테크 24:35 시사선전 KNN (부산 김해) 051-850-9000 14:10 전국 토크 10 가요쇼 16:30 뉴스 토크 18:05 생활속 투데이 24:35 KNN스페셜 TBC (대구) 053-760-2200 14:00 하늘에서 본 지구 18:20 최중우를 이세진 가족의 콜롬비아 적응기 14:45 영어유치원 요 가바가바 15:10 고양이 피피 16:00 당동당 유재형 16:30 콜로이의 요술 옷장 16:30 콜로이의 요술 옷장 16:45 총총는 곰 공야 17:00 방구덩이 형님 17:10 치료의 과학서 중요 17:30 생활속 투데이(1, 2부) 20:30 8뉴스 UBC (울산) 052-228-8200 12:30 TV특집 행복플러스 14:10 전국 토크 10 가요쇼 17:35 세상엔 유재형 18:25 영리한솔솔대 뒤란 KBC (광주) 062-650-3094 12:30 방구덩이 형님 14:10 건강칼럼 17:30 생활속 투데이(1, 2부) 20:30 8뉴스 JTV (전주) 063-250-5350 11:00 미래의 도전-세계의 하이테크 12:30 TV특집 행복플러스 17:35 세상엔 유재형 18:40 생활속 투데이 22:05 미생(2부-해방영국의 부활) 23:15 다문화10+	